

# “전통 차문화 배우고 정서함양 높이고...”

### 보성 ‘찾아가는 다례교육’ 수도권 학교서 인기... 27일 완도서 실시

“은은한 차향이 어지러운 제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 같아요.”

지난 14일 서울다솜학교에서 진행된 한국차박물관 박근희 보성예명원장의 ‘찾아가는 다례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했다. (사진)

이들은 우리나라의 차 문화를 배우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차와 함께 음미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보성군이 함께 하는 창조지역사업 ‘찾아가는 다례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4일과 15일에는 서울다솜학교와 동국고등학교에서 모두 5차례 실시한 교육에 182명의 학생이 자원했다.

교육은 간단한 녹차에 대한 이해와, 차 도구 설명, 차를 맛있게 우려는 법과 차 마시는 예절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서울다솜학교는 재학생이 대부분 다문화 학생들로 아직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은 청소년들이지만, 모처럼 한국의 전통 차문화를 체험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수업 중에 중국에서 온 여러 학생들이 차에 대한 이론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곧잘 대답했고, 집에서 차를 마시는 학생도 박 원장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보성군은 찾아가는 다례교육이 녹차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정서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향후 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일에는 부산 동래원에 고등학교에서 진행했으며, 27일 완



도를 비롯해 전국의 20여개가 넘는 학교에서 찾아가는 다례교육을 기다리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 올해 여수거북선축제 볼 만 하겠네

5월 3일~6일 열려... ‘통제영 길놀이’ 등 다채

### 내달 12일 영취산 진달래축제

올해로 47회째를 맞는 전남 여수의 대표축제인 여수거북선축제가 오는 5월3일부터 6일까지 여수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삼도수군 통제영 설치 7주갑(420년)을 기념해 다양한 부대행사와 전시·홍보, 체험, 연계행사 등이 이어진다. 또 거북선을 비롯한 갖가지 민속전통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삼도수군통제영의 두드림’이라는 주제로 시작될 이번 축제는 관람객을 위해 진행방식을 모두 스토리텔링화한 것이 특징이다.

3일 ‘용기의 한마당’, 4일 ‘희망의 한마당’, 5일 ‘신명나는 한마당’, 6일 ‘평화의 한마당’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에 의한, 관람객들을 위한, 관람객들의 축제로 펼쳐지게 된다.

특히 단계용물달기와 용출다리기, 거북선을 소재로 한 깜짝 놀이마당, 거북등 모형달기 등은 올해 축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들이다.

5월3일 군사정세를 신속하게 전달

하는 ‘파발마 재현’을 시작으로 개막될 축제는 같은 날 저녁 6시 30분 ‘통제영 길놀이’를 통해 이순신장군과 임란사 등을 역동성 있게 그려낼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통제영 길놀이는 30개 팀 3000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길놀이로 이순신장군과 거북선, 임란유물 등 다양한 가장물을 선보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축제 이름에 관련된 고유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해 명실상부한 여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겠다”며 “화합과 참여도를 높여 대한민국의 대표적 향토축제로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4월12일에는 전국 3대 진달래 군락지 가운데 하나인 영취산 일원에서 여수영취산진달래축제가 열린다. 4월14일까지 계속되는 이 축제는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진달래 음악회, 산상문화공연, 템플스테이체험, 화전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 친환경 보성쪽파 수확

지난 21일 보성군에서 봄을 맞아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한 참살이 채소 쪽파 수확이 한창이다. 보성에서도 특히 특량만을 기고 있는 특량면과 회천면에서 1150여 농가, 830ha에서 재배되고 있는 쪽파는 기후와 토질이 적합해 병충해가 없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다.

(보성군 제공)

친환경 보성쪽파 수확

## 여수 웅천공원 야영장 유료화

### 내달부터 6000원

여수시가 웅천천수공원의 야영장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유료화한다.

시는 20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대체숙박시설로 각광을 받았던 웅천천수공원 야영장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유료로 시범운영, 이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시민 여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웅천천수공원 야영장의 면적은 1286㎡로 총95개의 텐트설치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이 가운데 텐트발침대가 설치된 곳은 45개소, 미 설치된 공간은 50개소다.

이용요금은 1박2일 기준으로 텐트발침대가 설치된 곳은 6000원(비수기3000원), 미 설치된 장소는 3000원이며, 공원관리소에서 신청 후 요금

을 납부 하고 지정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는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이 갖춰져 있으며, 샤워장은 리모델링을 거쳐 6월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무료로 운영하다보니 야영장 내 무분별한 취사행위와 악취, 소음 등 많은 민원이 제기돼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료화에 나서게 됐다”며, “취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모닥불이나 그릴을 이용한 바비큐 행위나 폭죽 사용 금지, 규격봉투를 통한 분리수거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 “전남신보 광양지점 설립을”

### 광양시, 道에 건의

광양시가 최근 전남신보보증재단 광양지점 유치에 전남도와 전남신보에 건의했다.

시는 건의문에서 “광양은 업체수가 9천600여개(종사자 6만2천여명)로 전남에서 네번째로 많다”며 “광양의 3분의 1 수준인 화순, 장성, 강진에도 지점이 개설돼 있는데 광양은 없다”고 지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최근 전남신보 여수지점이

개설되면서 광양 관할권이 순천본점에서 여수지점으로 이관됐으나 거리나 시간이 더 소요돼 불편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전남신보는 전남도와 시군이 출연한 재단으로 전남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 자금조달을 하고자 할 때 부동산 등 담보력이 없더라도 전남신보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광양=박정희기자 pyj4079@

## 전북

### 군산 시립도서관 토요일도 문연다

### 자료실 밤10시까지 연장

군산시립 늘푸른도서관이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시설을 시설사용의 최대화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5일부터 전면 개관 운영한다.

도서관의 자료실은 평일 오후 6시에서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토요일은 기존 휴무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체력단련실과 장난감놀이방은 월~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늘푸른도서관은 개관시간 및 시설 확대운영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린이, 직장인 및 학생 등 다양한 계층

의 시민들이 활용하고 정보에 대한 수요요구를 충족시키는 물론 시민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책 읽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2개월간 시범운영하고 지난 6일 개관한 늘푸른도서관은 군산시 하나로 17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어린이 중심 도서관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 유아자료실과 장난감놀이방, 2층에 아동자료실, 3층에 일반자료실, 지하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예약대출기, 무인반납기,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군산=박근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완주에 ‘유네스코 흙 건축학교’ 설립

### 아시아 최초... 郡-목포대 협약 체결

### 아시아 최초... 郡-목포대 협약 체결

전북 완주군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UNESCO) 흙 건축학교’가 설립될 전망이다.

이 학교는 흙을 이용해 사회적·생태적 건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 주민의 건축기술을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 설립을 위해 임정영 완주군수와 한국 흙 건축연구회 황혜주 대표(목포대 교수)는 21일 군청에서 ‘흙 건축 전문가 양성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흙 건축학교는 유네스코 흙 건축위원회가 인증하는 흙 건축 교육기관으로 단기 과정부터 대학원 수준의 고등교육과정을 갖춘 계획이다.

또 흙 건축의 재료와 공법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와 교육,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 교육, 귀농·귀촌 맞춤형 건

축기술 개발 등에도 나선다. 아울러 흙 건축 기술을 활용한 흙벽돌 생산,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지역 소득증대 모델도 개발기로 했다.

2002년 발족한 한국 흙 건축연구회는 목포대 건축학과 교수진을 중심으로 흙 건축 분야 전문가 등 7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유네스코 흙 건축위원회 협력기관인 이 연구회는 2009년 프랑스 국립 흙 건축연구소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필리핀·네팔 등지에서 빈곤가정 주거 개선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회를 두고 있다. 유네스코 흙 건축위원회 협력기관인 이 연구회는 2009년 프랑스 국립 흙 건축연구소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필리핀·네팔 등지에서 빈곤가정 주거 개선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 정읍 전국대회 및단 개최

### 특산품 홍보 등 39억 창출

정읍시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를 연이어 개최하여 생활체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2013년 전국 종합핸드볼 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5월에는 동학농민혁명 전국계이트볼 대회와 전국 궁도대회, 대한민국 조선제법 경연대회를, 7월에는 국민생활체육회경매 전국 남녀 배구대

회와 전국 우수중학교 초청 축구대회 등 올해 정읍에서는 6개 종목의 전국대회가 열린다.

시는 대회기간 모두 56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정읍을 방문, 지역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 요식 및 숙박업소 활성화 등을 통해 약 25억원의 지역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4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초·중·고·대학생 110개 팀 22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할 2013년 전국 종합핸드볼 선수권대회만도 14여억원의 지역경제유발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전주·완주 탄소협 창립



고창항도배기유통 주창 (주)고창항도배기유통이 지난 19일 동리국악당에서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는 이강수 고창군수, 박래환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농협중앙회고창군지부장, 관내 지역농협조합장 등 주요 내빈과 500여명의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영엽보고와 감사보고, 2013년도 사업계획, 대표이사 및 임원 선임, 정관변경 안 등을 의결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 단신

### 정읍시, 발전협 간담회... 서울 장학속 건립 토론

정읍시는 지난 20일 5층 대회의실에서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법조인, 연구기관, 사회단체, 언론인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정읍시 발전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주요내용 설명과 서울장학속 건립 협력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필리핀·네팔 등지에서 빈곤가정 주거 개선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견을 나누고 지역 특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협의회 위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 장학속 건립을 위해 사랑의 벽돌 기증하기, 1인 1만 원 통장 갖기, 일정금액 이상 기탁자 핸드 프린팅 실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순창, 탄소포인트제 상업시설까지 확대

순창군이 탄소포인트제를 상업시설까지 확대한다.

탄소포인트제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순창군은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군은 탄소포인트제 신청자에 한해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연 2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587세대에게 229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전기와 상수도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324t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계량기가 별도 설치된 사업자가 1년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lee@

### 남원, 서울서 촌맹이 딸기 직거래 장터

촌맹골 촌맹이 딸기 수확기를 맞아 남원시가 농가 소득증대 및 촌맹향 등 축제 홍보 등을 위해 오는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대입구역, 건대입구역, 공덕역,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등 7곳에서 장터를 운영한다.

남원시 농·특산품 유통연합회와 생산자 단체가 참여한 이번 장터에서

는 촌맹이 딸기, 남원 참미, 한과, 추어탕 등 30여 종을 직거래 판매하고 있다.

특히 촌맹이 딸기는 키토산과 솔럼 등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도입하면서 큰 호응을 받아 지금까지 5000박스 판매,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이뤘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